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성생활에 관한 탐색적 연구

Perception of Elderly Sexuality and the Sexual Life of Those who have Spouses

한서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노인복지학과

조교수 김윤정*

Dept. of Elderly Welfare, Hanseo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Kim, Yun-Jeong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perception, as well as the prejudices, of sexuality of the elderly and their sexual life. Older men and women aged 66-80 (N=17) who are married, healthy, and living in communities were interviewed regarding ADL, present and past sexual practices, prejudices on elderly sexuality, and obstacles to sexual lif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old perceived that sexuality even in old age is an important part of life. However, they were also prejudiced about sexual intimacy in old age. Second, although an increase in age is correlated with a decrease in sexual activity, a number of older men and women continue to have active sexual life and they are satisfied with it as ever. This indicates a duality in the way the elderly perceive sexuality. Third, health status, partner's responsiveness, and environmental problems are prominent obstacles to sexual life. The study revealed that late-life sexuality must be conceived as a complex bio-psycho-social phenomenon. Consequently, it is important to hold sexual education programs for the young and the old.

▲주요어(Key Words) : 성(sexuality), 노년기 성에 대한 인식(perception on elderly sexuality), 노인들의 성생활(sexual life of the elderly)

1. 서론

인간의 수명이 증가하는 가운데,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의 평균 수명의 차이가 1983년에는 8.3년, 2001년에는 7.4년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노인의 단독가구가 증가(통계청, 2002)하고 있다. 이는 노년기 부부관계가 다른 어떤 시기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으로, 노년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노년기 부부관계에 대해 사회와 학계가 주목하고 있다(Allen, Blizer, & Roberto, 2000).

지금까지 노년기 부부관계와 관련된 연구들(Atchley, 2000 ; 김태현, 전길량, 2002; 이행욱, 2002)의 주된 주제는 노년기의 결혼만족도나 결혼의 안정성으로,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인 부부간의 성, 특히 노부부간의 성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은 부족하였다(김동일, 1997). 이는 인간의 성이 개인간의 은밀하고도 친밀한 행위이지만, 각 사회문화에 따라 적절한 성행동에 대한 규제가 있고, 금기(taboo)나 편견 또한 존재하고 있어(Cox, 1999) 성을 학문적으로 다루는 어려웠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발 맞추어 노년의 성에 관한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다. 노년의 성과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생활의 빈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성생활을 즐기고 있으며(김주희, 이창은, 2000; 박형규, 2000 ; 송상효, 1997; 이미경, 1998 ; 이윤숙, 1983; Pfeifer, Verwert, Davis, 1972; Starr & Weiner, 1981; Weinberg, 1982), 건강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성교가 불가능할 경우 스킨십과 애무, 자위행위 등 성교 외의 성생활도 빈번한 것으로 보고(Bretschneider & McCoy, 1988)하

* 주저자: 김윤정 (E-mail : twoyun21@hanmail.net)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성을 포괄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채 노인의 신체적 성기능에 초점을 두거나, 성기능의 개선이나 성관련 질환을 다루는 중재를 제시하거나 또는 실제로 노인들도 성생활이 가능하다는데 그치는 아쉬움이 있다.

성은 한 개인의 필수요소이자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존재방식으로서, 재생산의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관계를 역동적으로 규정하는 다양한 국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을 단순히 성적행위와 동일시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잘못된 것이며 성은 성적행위만이 아니라 모든 유형의 성적 느낌과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개념(권명숙, 2002)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심층면접을 통해 노인들의 성생활을 분석한 연구들(강현숙, 2002 ; 권명숙, 2002)이 발표되었다. 강현숙(2002)의 연구는 배우자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노인들의 성생활빈도, 욕구 등을 분석하였고, 권명숙(2002)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노인들의 성생활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 역시 성에 대한 언급이 공공연한 현재에도 노인들은 자신들의 성욕구를 표현할 때 사회문화적으로 노년의 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나 고정관념, 대중매체의 메시지 등에 영향을 받는다(이미경, 1998 ; Brown, 1989; Glass, Murstein, & Carter, 1986 ; Hillman & Stricker, 1996)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의 노인들이 성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노년의 성과 관련하여 사회문화적인 편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한 사회적인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이 노인들의 성생활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시대를 따라 살아움직이는 노년의 성을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있고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65세 이상의 재가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이 살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속에서 인간의 제 현상을 포괄적으로 탐구할 수 있고 연구자의 시각을 확대함으로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면접을 통한 질적인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노인들은 노년기 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노인들의 부부간 성생활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성에 대한 인식과 노년기 성생활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파악함으로써 노년의 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교육프로그램에 기초가 되리라 사료된다.

II. 이론적배경

1. 노년의 성에 대한 인식

Carstensen(1993)은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가장 친밀한 관계인 배우자와의 관계는 오히려 긴밀해져서 감정적인 관계의 질은 유지된다고 하였다. 친밀한 관계는 연령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며 가장 중요한 관계인

부부관계가 중요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Atchley, 2000 ; Levinson Carstensen & Gottman, 1995)은 중년기 부부와 비교해서 노년기 부부들이 잠재적 갈등 요소들의 심각성이 적어지고 즐거움을 더 많이 경험하며, 애정을 더 많이 표현한다고 보고함으로써 노년기에는 다른 시기에 비해 부부간의 애정적 관계가 더욱 중요해짐을 시사하고 있다.

부부간의 애정적 관계에서 성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애정적 관계의 중심에서 있는 노년기 부부의 성생활에 관한 관심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전반에 노년기 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팽배해 있(김동일, 1997 ; 조성숙, 1999) 때문으로 이로 인해 현재의 노인세대는 노년기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이중적인 사고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중규범, 이중 가치체계란 동일한 상황에 성격을 달리하는 두 개의 규범이 공존하면서 행위자의 선택에 따라 규범의 적용이 달라지는 것(최봉영, 1994)으로 설명된다. 현대의 한국사회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걸쳐 농업사회, 공업사회 그리고 정보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는데,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동일한 시대와 상황에서 두개의 가치가 공존하면서 행위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이중적 가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예컨대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 속에서 한복과 양복, 한식과 양식, 한옥과 양옥이 존립하듯이 개인에 있어서도 전통적 가치와 이와는 상반되는 현대적 가치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신수진, 2001).

특히, 현재의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해방이전의 출생자들로써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에 강하게 젖어 있다(조성숙, 1999). 이들 노인들이 교육받고 경험해온 전통적인 가족관계에서는 부자관계가 부부관계에 우선하는 부자 중심적 가족으로, 부부간의 사랑이나 애정과 같은 감정적 표현은 무시되었고 또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성관계는 애정표현이나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이 아니라 단지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의무에 지나지 않았다(이광규, 1975). 그러나, 전통사회에서 지배적이었던 전통적 가족주의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부부중심의 핵가족화가 되고 서구의 개인주의나 낭만주의 가치가 보급되면서 부부간의 평등과 사랑의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가족원간의 관계를 맺어주는 중심원리가 효에서 사랑으로 대체되었고, 부부관계 내에서도 역할보다는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가 중요시되어, 부부간의 사랑의 표현이 자연스럽고 성생활 또한 자녀출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확인이나 그 자체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행해지게 되었다(정민자, 1994).

따라서 현재의 노인들은 부자중심적 가족관계에서 부부간의 성이나 애정적 친밀감을 표현하지 못하는 시기에 청·장년기를 보냈으나, 지금에 와서는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가 그 어느 관계보다 우선시되는 시기에 노년기를 보내기 때문에 다른 세대에 비해 성에 관한 이중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지금의 노인들은 성에 관한 한 상당한 가치체계의 혼란을 경험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적응으로 잠정적인 가치체계와 행위

의 유형을 구성하게 되었고(임희섭, 1980), 결국은 자신들의 성적 욕구와 그 욕구의 표출에 있어서의 상당한 괴리를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진주(1999)와 김주희, 이창은(2000), 김경자(2002)는 그들의 연구에서 노년의 성에 대한 태도를 분석했는데, 노인들의 노년의 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진주(1999)는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 26명과 면접을 통해, 노인들이 성관계를 하고 싶어하며, 삶에서 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생활에서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생활에서의 문제는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진주(1999), 김주희와 이창은(2000), 김경자(2002)는 노인들이 노년의 성에 대한 사회나 주변의 시선, 편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러한 시선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이 노년의 성에 대한 인식이나 성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못하고 있다.

단지, 이미경(1998)은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들의 성생활을 저해한 요인으로 노인에 대한 무시를 가장 우선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사회나 노인개인의 성에 대한 인식이 노년기 성생활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노인들은 자신들의 성욕구를 표현할 때 사회문화적으로 노년의 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나 고정관점, 대중매체의 메시지 등에 영향을 받는다 (Brown, 1989; Glass, Murstein, & Carter, 1986 ; Hillman & Stricker, 1996)는 외국의 연구결과들이 본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2. 노년기의 성생활

노년의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는 달리 노인도 성적인 존재임을 증명하는 실증연구들이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되었고, 이들 연구는 사회에 만연해 있는 노년기 성에 대한 편견과 신화를 깨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윤숙(1983)의 연구를 필두로 하여, 1990년대 후반 활성화되고 있으며, 서구의 연구결과와 같이 노인도 성적인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노년기에도 노인들은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고령의 나이까지도 성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물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생활 빈도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김주희와 이창은(2000)의 연구에서는 유배우자 노인 64명 중 21명(32.8%)가 현재까지 성생활을 하고 있으며, Matthias, Lubben, Atchison, Schweitzer, (1997)의 연구에서는 1216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30%의 노인들이 지난 달에 성관계를 갖었으며 67%가 성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박형규(2000)는 남성노인은 월 1회가 71%, 여성노인은 1년에 1회가 50%로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성생활의 기본적인 요소인 성욕구는 주로 노인들이 비디오나 영화의 성적인 장면에서 성적인 욕구를 느낀다는 보고(강현숙, 2002 ; 권명숙, 2002)

와 영화의 야한 장면보다는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느낀다는 보고(이미경, 1998)가 있다.

이러한 노년기 성생활은 건강이나 주거환경과 같은 요소 때문에 장애를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구자들(오진주, 1998 ; Mattias 등 1997)은 성생활의 장애요인으로 건강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오진주(1998)는 자신의 건강상태와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성생활빈도가 높아진다고 보고 하였으나, Mattias 등(1997)에 의하면 남성노인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성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여자노인은 건강상태와 성생활유지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상태와 성생활유지에 대한 선행연구결과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성생활을 할 수 있는 신체적인 성적능력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여러 문헌에서 발견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지각하는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노년의 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자녀와 동거한다거나 손자녀와 한방을 쓰는 것과 같은 주거환경적인 요소가 성생활과 관련이 있음을 지적한 연구(서혜경, 이영진, 1997)도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유배우자 노인들이 어떠한 요소에 의해 성생활에 장애를 경험하는 가를 분석하였다.

한편, 노년기 성생활은 노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먼저 성생활유지나 성생활 빈도에 있어서 젠더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진다. 남자의 성적능력은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지속적이고 성생활비율도 높음에 비하여 여자의 경우는 고령일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진주, 1998; 이윤숙, 1983). 그러나 노년의 성에 있어서 이러한 젠더의 차이는 실제로 선행연구들이 배우자 유무에 따라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있다. 즉,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남자노인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적고 이런 이유로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배우자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노년의 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성에 대한 욕구나 평생 생활동을 해 온 경우,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년기 건강 등에 따라 성생활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김경자, 2002 ; 김주희, 이창은, 2000)되고 있다.

3. 노년기 성에 대한 인식과 성생활

최근 노년의 성에 대한 인식이 노인들의 성생활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실증연구들에서도 제기되었다. 김경자(2002)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성생활 빈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와는 달리 김주희와 이창은(2000)은 성태도와 현재의 성생활유무는 관련이 없다는 보고를 하였다. 즉, 노년의 성에 대한 욕구, 중요성 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노인과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노인간의 현재의 성생활유무에 차이가 없었다. 또한 1,202명의 남성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Bortz II 등 (1999)은 자신의 성적 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성행위 빈도가 증가함으로써

성에 대한 인식이 노년의 성생활과 관련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처럼 노년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생활을 직간접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다소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은 연구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김정자(2002)는 여성노인만을, BortzII 등(1999)는 남성노인만을, 그리고 김주희와 이창은(2000)은 남녀노인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내기 어렵다.

요컨대, 노년의 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노년의 성생활은 배우자 유무와 건강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일관성 있게 제시함으로써 노년의 성생활과 관련한 연구에서 배우자 유무와 노인의 건강상태를 통제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노년의 성을 파악하고자 했던 질적 연구들도 실제적으로 노년의 성에 대한 실태는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나, 노인들의 노년의 성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인식이나 편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한 그러한 인식이 노년의 성생활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분석해내지 못하고 있다. 즉, 노년의 성에 대한 편견이 사회전반에 깔려 있는 맥락에서 노년의 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몇 편의 연구들이 성에 대한 태도와 성생활빈도간의 관계를 보여주기 하였으나 성에 대한 인식을 단순히 긍정적이다, 혹은 부정적이다라고 단정지어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분류로는 노인들의 성에 대한 인식, 이중적인 가치관 등을 포괄적으로 규명해 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년의 성을 노인들과의 솔직한 대화와 통해, 노인들이 사회적인 편견이나 노인자신들의 성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현재의 성생활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파악하고자 배우자 있으며 건강상에 문제가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며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유배우자 65세 이상 남녀노인 17명(재혼 3명 포함)이다. 2001년 7월 서울의 과고다 공원과 종묘, 그리고 충남에 거주하는 노인들로 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털어놓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자 중 1인이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접자는 현재 50대이며 양로원을 운영하고 있어 노인들의 삶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노년의 성이 다소 거북하고 민감한 주제일 수 있으나, 노인들로부터 비교적 솔직하게 성에 대한 응답을 끌어냈다고 보아진다.

면접시에는 성적파트너(이성친구)가 있는 노인 5명이 포함되었으나 배우자와 성적파트너의 개념이 한국의 정서에서는 동일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제외시켰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들이 노년의 성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보고해온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배우자 유무를 통제하였다.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일상생활동작능력과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함으로써 통제하였고, 배우자 유무는 유배우자 노인만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건강상의 문제로 노년기 성생활이 불가능한 노인들과 성적 파트너가 없어 성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선별해 내는 작업을 하였다.

면접에 앞서 본 연구의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한 뒤 면접에 응할 의사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일상생활동작능력(ADL)에 관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일상생활동작능력은 Kempman과 Suurmeijer(1990)의 ADL/IADL척도 중 ADL 문항 9문항만을 선별하였으며, 전혀 불편하지 않다(1점)에서 자주 불편하다(5점)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일상생활동작능력점수가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고 면접을 하지 않았고 이렇게 제외된 노인은 3명이었다.

간단한 설문조사 후 노년기 성에 대한 인식, 현재의 성생활, 성생활과 관련된 요소(장애요인) 등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심층면접에 앞서 선행연구(김동일, 1997 ; 김주희, 이창은, 2000 ; 서혜경, 이영진, 1997)에 근거하여 간단한 질문을 준비하였으나, 연구의 주제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편하게 성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였으며, 그 흐름에 따라 검증(probing)하였다. 따라서 구조화된 질문과는 달리 모든 질문을 모든 노인에게 똑같이 질문하지는 못하였으며, 분석결과에서 제시하는 수치가 17명이 아닌 경우가 많다. 면접시간은 한 사람 당 대략 1시간 정도로서, 양해를 구하고 미리 준비된 녹음테이프에 면접 과정을 녹음하였다.

노인들의 일상생활동작능력 점수가 5점 만점에 1.30(.48)이며, 또한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들과 비슷하거나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3명으로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로 볼 수 있어, 건강상의 문제가 성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노인들로 볼 수 있다.

<표1.>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번호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1	남자	69	초졸	기혼
2	남자	66	초졸	기혼
3	남자	69	초졸	기혼
4	남자	77	중졸	재혼
5	남자	78	고졸	재혼
6	남자	72	초졸	기혼
7	남자	75	중중퇴	기혼
8	남자	72	초졸	기혼
9	남자	74	중졸	재혼
10	여자	80	초졸	기혼
11	여자	73	초졸	기혼
12	남자	74	초졸	기혼
13	남자	72	중졸	기혼
14	남자	66	초졸	기혼
15	남자	67	중졸	기혼
16	여자	73	무학	기혼
17	남자	74	초졸	기혼

남자노인은 14명, 여자노인은 3명(사례 10, 11, 16)으로 남자 노인의 수가 많다. 노인의 연령은 66세부터 80세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평균연령이 72.3세로 노년기 성을 다룬 연구들(김주희, 이창은, 2000 ; 서혜경, 이영진, 1997)에 비해 연령대가 높은 편이다. 기혼인 경우가 14명, 재혼인 경우가 3명(사례4, 5, 9)이며, 노인들의 학력은 무학이 1명, 초등학교 졸업이 9명, 중학교 중퇴가 1명, 중학교 졸업이 4명, 고등학교 졸업이 1명이고, 월 평균소득은 67.75만원으로 학력이 낮고 소득수준도 낮은 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본 연구대상자들이 연령이 높고, 단독세대가 많기(13명) 때문으로 볼 수 있다<표1.>

2. 분석

면접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녹음된 테이프를 다시 풀어서 전체 면접내용을 모두 문자화하여 기록하였다. 그 면접내용을 통해, 성에 대한 인식, 성에 대한 이중적 가치관, 현재 노인들의 성관계 횟수, 시기, 성생활 장애요인 등을 직접 분석해냈다. 전체 25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으나, 그 중에서 배우자가 없는 노인 5명과 녹음상태가 불량한 3명을 제외한 17명 노인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노년기 성에 대한 인식

노년기 성에 대한 인식은 먼저 노년기 성에 대한 인식과 노년기 성에 대한 이중적 가치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성에 대한 인식

(1) “성이란 게 없다면 숨 막혀서 못 살지”

노년기 성에 대한 인식은 ‘노인들의 성, 성행위, 성적욕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17명의 노인들 중 14명의 노인들이 “필요하다, 삶의 활력이다” 등 노년기의 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 보였다.

“성이란 것은 예~ 인생의 본능이고 인생 뿐 아니라 모든 미물까지 이것이 다 본능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몸은 늙어서 말은 듣지 않고 인지 그 성에 대한 애착은 더 가죠. 성생활은 많이 허야 좋다고 생각하죠. 성생활 잘함으로써 여러 가지가 좋지. 물론 예를 들어서 예 ~ 좀 시들어졌다. 잘 안된다 정신적으로 충격이 크다고 이게. 남의 인생이든 내 인생이든 거의 마감단계가 아니냐. 근데, 사람은 정력이 약하든 장수도 못허구, 꼭 그렇더라구(사례 13, 남자 72세).”

“당연하지 내가 나이가 먹어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욕구를 안 가질 수는 없지, 활력이라고 볼 수 있지(사례 15,

남자 67세).”

“성이란 게 없다고 한다면.. 너무도.. 숨막혀서 못살지(사례 8, 남자 72세).”

노년의 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노인들은 노년기 성생활이 가정화목, 삶의 활력파도 연결되며, 인생에 애착을 가게 하는 요소로 보며, 또한 성생활을 잘 못하게 되는 것은 인생의 마감단계로 보거나, 특히 남성들에게 성생활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등 상당수의 노인들이 성을 통해 삶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이처럼 다수의 노인들이 자신들의 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는 부부간의 성과 사랑의 관한 인식의 전환기를 살아온 노인들이 자신들의 편견으로부터는 자유롭다는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또한 노년의 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은 노년의 성행위 성생활 등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성생활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부부간의 성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외의 성적파트너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것에 비해 노년기의 성이 노인들의 삶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좋은 기구가 나와 있으면 그걸 사용해 봐서 되면 좋구 안되면... (사례 12, 남자 73세).”

“나 같은 경우도 많은 서적, 특히 신문이나 방송에 비노기과 같은 게 나오면 열중히 봅니다. 우리네 인생도 몸은 늙아지고 예 ~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젊음은 남았으니깐, 그러니깐 무슨 약이라도 먹어서 어떤 무어라도 해서 이 성생활을 다만 예 ~ 한번이라도 더 해 보고 싶은 욕구가 있죠. 또 활려고 노력하고 (사례 13, 남자 72세).”

“그러니까 접근을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나 혼자 애인이 하나 있어. (할머니도 아세요?) 우리 와이프한테 뭐. 하나 비밀이 없어요. 다 공개하고 다 이해해주고. 내가 또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 와이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하나 다친 부분이 없어요(사례 13, 남자 72세).”

한편, 노년기 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노인들은 노인이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것이나 자신들의 성생활을 부끄러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즉,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3명, 부끄럽지 않다고 보는 노인은 9명으로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高橋·美子(1984 ; 최영아, 이정덕, 1996 재인용)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들은 남성, 여성 모두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가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남성은 8할 전후, 여성은 7할을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2) “늙은이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그러나 17명의 노인 중 3명의 노인들은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관심이 별로 없다” 등 노년기 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사례 6의 경우는 노년기의 성생활이 생명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노인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함으로 노년기 성에 대한 강한 편견을 나타냈다. 이처럼 노년기 성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노인들을 모두 남자노인들이었으나, 노년기 성에 대한 편견이 없는 다른 노인들에 비해 연령이나, 학력 등에서 별 다른 차이가 없어 보였다.

“긴디, 우린 그런 거 좋게 생각안해요. 그 그런 성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뭐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버람 좋게 생각 않죠(사례 1, 남자 69세).”

“자식을 두고 참.. 60세 이상이면은. 진짜 앓는게 지금 현상에서 내가 볼 적에는 좋겠다. 늙은이의 가치관이 떨어진다거나 본인의 늙은이의 생명에도 지장을 두고...(사례6, 남자 72세).”

(3) “즐거우니까, 서로 그렇지 않아?”

다음으로 노년의 성과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여자노인의 성이다. 여자노인의 성은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주의(agesim)와 여자에 대한 성차별(sexism)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김동일, 1997)하여 남자노인에 비해 여자노인들의 경우 노년의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분석결과 3명의 여자 노인 모두 노년의 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경향은 권명숙(200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물론 여자노인의 수가 남자노인의 수에 부족하고 또한 모두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기 때문에 노년기 성에 대한 인식에서 젠더의 차이가 없다고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최소한 노년기 성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거야 잘 피차에 서로에 성생활을 잘 하고 그래야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지. 어 일상생활도 가치가 되는 거지 (사례 10, 여자 80세).”

“중요하지 그럼.. 남자들은 그거 안하면 큰일 나잖아요. 암케도 부부생활도 못하고 하면 기두 죽어지고 힘이 없지. 당체도 부부생활도 잘 돼고 하면 힘이 있지.. 나두 남자도 좋으니까 했지. 즐거우니까. 서로가 그렇지 않아? 중요한 거를 못하니까 문제지 (사례 11, 여자 73세).”

2) 노년기 성에 대한 이중적 가치관

노인들의 성에 대한 이중적 가치관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성에 대한 욕구와 성욕구 표출에서의 차이,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살펴보았다.

(1) “그거야 대외적으로 알아서는 안되지”

노인들은 노년기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

다 해도 자신들의 성생활을 떳떳하게 드러내기보다는 감추는 것이 노인으로서의 처세에 맞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성생활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고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응답했던 노인들도 밖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했다.

“뭐 하러 그런거 자기 나름대로 이 마음가짐서 행해지는 걸.. 넘에 대해서 신경 쓸 까닭이 있다. (본인 성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야 대외적으로서야 알아서야 안되지(사례 9, 남자 74세).”

(2) “밤에도 불을 켜 놓고 못하게 혀..”

앞서 분석에서 보았듯이 여자노인 3명 모두 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으나, 사례 16은 자신이 성적인 욕구를 느낀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조심한다고 하였다. 또한, 여자노인들의 긍정적인 인식과는 달리 남자노인들은 여자노인들이 성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성생활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도 성 기능 감퇴가 일찍 나타나는 여성의 성 기능 자체의 문제와, 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성생활 자체에서는 남자노인들에 비해 소극적인 거부장적 양상을 그대로 반영(조성숙, 1999)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하게 나는 그런 생각은 침이야. 생각이 혹시 있을 때도 조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 눈에 띄면 안되고, 아주 딱하게 된다구. 그래야지 멋쟁이가 된다구(사례 16, 여자 73세).”

“이치는 뭐냐 할 거 같으면, 가정 주부들은 지금 늙이덜..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성교육을 학교 때부터 받으니까, 근데 노인들은 아는 노인들은 특히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도망간다고 그렇지 않아?, 성교육이라면 다 도망가 들덜 안해. 그럼 무식하다고 그런 얘기하면은. 나는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부부생활을 지금 마누라하고 혈적에 낮중에 조용하거나 혈적에 한번도 해 본 사실이 없어.. 밤에도 불을 켜 놓고서 못하게 혀.. 어렵도 없어 (사례 9, 남자 74세).”

“그렇지, 나이살 먹으니까.. 나이 칠십이니, 여자들을 인자 자꾸.. 내가 남자는 욕구가 있는데 여자가 좀 계면찍어하지(사례 3, 남자 69세).”

그렇다면 노인들이 성생활에 대해 이중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은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자는 현재의 노인세대가 경험한 급격한 사회변동과 그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런 이유로 노인들에게 ‘젊은 시절 그 당시의 노인들의 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 했느냐’의 질문을 하였는데, 이 질문은 젊은 시절에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이 노후까지 이어진다는 주장(서혜경, 이영진, 1997)에 따라 젊은 시절 당시의 노년의 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면 현재 자신들의 성에 대해 긍정적이기 때문에 성에 대한 이중적 가치관이 미약할 것이고, 부정적이었다면 성에 대한 이중적 가치관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였다. 분석 결과, 긍정적이었다고 응답한 노인이 3명, 부정적이었다는 노인이 7명,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해봤다는 노인이 3명으로 젊은 시절에는 노인들의 성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논산 훈련소에 거기 역전에서 파는 여자들 부인들.. 위안소 가서 보면은 85살 되는 노인네가 5일마다 오는 거예요. 5일마다... 손녀 같은 여자하고. 그렇게 거시하는데 그렇게 저렇게 정력이 좋을까, 지금와서 저기하면 참 그 양반. 그 때에는 나도 늙으면 저럴 때가 있을라나 느꼈었죠. 어 참 (사례 12, 남자 74세).”

“안될 것이다 생각을 했지. 근데 지금 내가 65센데, 이 나이를 딱 먹고 보니깐 나이가 나보다 더 먹은 사람만 봐도 아 ~ 저 사람은 가능하겠다, 충분하겠다 (사례 15, 남자 67세).”

2. 노년기 성생활

노년기 성생활은 성관계 횟수와 만족감, 성욕구가 일어나는 시기, 그리고 현재 성생활의 장애가 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로 분류하였다.

1) 노인들의 성관계 횟수와 만족감

현재 부부간 성관계 횟수는 일주일에 1-2번이 3명, 한 달에 3-4번이 5명, 한 달에 1-2회가 3명, 일년에 3-4회가 3명, 하지 않는 경우는 6명으로 나타났다. 물론 수치상으로 볼 때는 젊은 시절에 비해서 성관계 횟수가 감소한 것은 분명하다. 노인들의 젊은 시절(주로 신혼기)에는 하루에도 두 세 차례 부부관계를 했다는 노인이 2명, 매일 부부관계를 했다는 노인은 6명, 일주일에 4-5회는 1명, 일주일에 2-3회는 3명으로 나타났다. 젊은 시절이라는 시기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또한 과거에 대한 회상이기 때문에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현재의 노인들이 젊은 시절에 성생활에 있어서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현재의 성생활의 빈도가 과거에 비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를 갖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현재도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 노인들의 연령이 평균 72.3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많은 노인들이 고령까지도 성관계를 즐길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이며, 선행연구의 결과(김주희, 이창은, 2000; 박형규, 2000; 오진주, 1999; 이운숙, 1983; Weinberg, 1982)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노화로 신체적 기능이 떨어져도 성기능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며, 늙으면 무성의 인간이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증거가 될 수 있겠다.

반면, 기혼여성노인 3명 모두가 현재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여성노인의 연령이 73-80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 배우자는 좀 더 고령일 것이고, 노년기 여성의 성적활동은 남편들의 성적욕구와 능력여하에 크게 의존한다는 김주희와 이창은(2000), 송상효(1997)의 견해와 일치한다.

2) 성욕구가 일어나는 시기

다음으로는 언제 성욕구가 일어나는가를 질문했다. 이와 관련된 응답을 한 12명의 노인 중 5명은 비디오나 영화의 야한 장면을 들었고, 젊은 여자, 친구들이 정력적으로 보일 때, 부인과 함께 잘 때라고 이야기한 노인이 각각 1명 씩, 그리고 6명은 특별히 성적인 충동을 느낄 때 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비디오나 영화에서 성적인 욕구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강현숙(2002)의 연구나 권명숙(200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에서 다양한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순간적으로 그런 게 있긴 있어. 그러니까 인자.. 그.. 뭐 어드런 장면을 봤을 적이 어디 가서 비디오 같은 거 그런거 봤을 적이.. 그런때가 있어 (사례 9, 남자 74세).”

“그야 많죠. 예를 들어서 예가 아닌 실례를 들어서 밤에 서너 다섯시경에 잠이 깬다 말이며. 그러면 심심하면 비디오 이십 몇 번을 틀면 주로 그런 그 영화하나 보더라고 그런 보면은 예 ~ 충동을 느끼죠. (그 외에는요?) 아니 비디오뿐만 아니라 여자들하고 좀 이런 대화를 하던가 같이 술을 한잔 나눈다거나 자유미팅을 하다보면 성적 충동을 느낄 수 있겠죠(사례 13, 남자 72세).”

3) 노년기의 성생활과 관련되는 요소(성생활 장애요인)

노인들은 성생활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건강과 배우자의 거부, 주거환경적 요소를 들고 있다(복수 응답으로 합계가 17이 넘음). 이 결과는 여러 연구자들(김주희, 이창은, 2000; 오진주, 1999; Bortz II 등, 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1) “몸이 안 따라 주잖아”

11명의 노인들이 성생활이 건강과 관련된다고 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불편이 없고, 같은 연령대의 노인들에 비해 비슷하거나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점을 고려해 보면, 육체적 건강에도 불구하고 연령증가에 따른 성기능 감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음.. 성관계를 이뤄보면 신호가 와.. 그러니까 맘적으로 포기를 했다구, 신호가 와서 영향제를 먹었는데 어렵고. 한 이틀간, 머리로 좀 디이.. 한 침 머시가 있고 피로 허고 그래. 그래서 아주 거길 포기를 해버렸어(사례 9, 남자 74세).”

“아.. 뭐 허긴 하지만 몸이 안 따라 주잖아... 근데 마음으로는 청춘이지 에..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안따라 주잖아. 그지 ... 어 그러니까 그게 사실 아쉬워 (사례 8, 남자 72세).”

(2) “어디까지나 상대방 여자죠”

배우자의 거부나 배우자의 질병을 드는 노인이 5명이었다. 배우자, 여기서는 주로 여자노인들이 거부한다는 것으로 성관계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어디까지나 상대방 여자죠.. 남자는... 최대한의 서비스, 최대한의 노력, 이것이 뭐 본능이니까(사례13, 남자 72세).”

“우리 할머니가 아픈지 오래됐어... 그러니...(사례 9, 남자 72세)”

(3) “애들이 들어와요”

세 번째, 주거환경상의 문제를 드는 노인이 4명이었다. 주거환경상의 문제는 손주들과 한방을 쓴다거나 성인 자녀들과 한 집에 동거를 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은밀한 시간이 방해받는 것을 의미하며, 젊은 세대가 노인들의 성에 대해 좀 더 배려해주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낮이라도 한 번 활려고 하는데 애들이 들어와요 (사례 2, 남자 66세).”

“그런데, 지금은 손주들이 또 같이 살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주들이) 같이 산께, 그것이 자꾸 멀어지더라구(사례 3, 남자 69세).”

3. 노년기 성에 대한 인식과 현재의 성생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성에 대한 인식이 성생활(성에 대한 욕구 포함)로 나타난다는 전제로 분석을 하였다. 이는 인간에게 내면화된 가치관이나 규범의식은 인간의 행동을 좌우(김윤정, 정선아, 2001; 신수진, 2002; Palmore, 1988)한다는 주장에 따라, 성에 대한 인식은 성행위나 성적욕구로 표출된다고 보았다.

1) 성에 대한 인식과 성생활 빈도

노년기의 성에 대한 편견이나 이중적 가치관은 현재의 성생활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년기의 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노인들은 현재까지도 성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나아가서는 성욕구를 느끼는 것이나 성생활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거는 부끄럽게 느끼는 거 하곤 관계 없죠. 그건 뭐 상대가 같이 살아 온 사이고, 또 내가 내 와이프와 자는 거.. 부끄럽다는 그런 느낌은 없지. 그거 뭐, 본인의 인생의 일인데 뭐 부끄러울게 뭐가 있어 (사례 13, 남자 72세).”

반면, 앞서 분석에서 성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6명의 노인은 여자노인 3명과 노인의 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분류된 3명의 노인들(사례 1, 3, 6)이다. 따라서 노년기의 성에 대한 인식은 현재 노인들의 성생활과 관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나 같은 경우는 그 좀 나이 먹은 사람이 난잡하다고 할까. 더군다나 지금 여자들하고 그렇게 뭐. 너무 잘 접촉을 안해요 우린(사례 1, 남자 69세).”

“그거 참 그렇지 않다고 봐요(성관계를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야 해요. 그게 영향을 생각한다면 늙은이의 가치가 떨어질 뿐 더러 본인의 늙은이의 생명에도 우선 을 참여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성관계에 특별히 완전히 자기가 성을 느끼고 안느끼고에 대해서는 그게 너무 관심을 두는게...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비아그라니 머니 어떤 주제 넘게 먹고 뭐.. 저는 그런거 해당치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례 6, 남자 72세).”

2) 성에 대한 인식과 성생활 장애요인

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3명의 남자노인들은 실상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노인들에 비해 배우자가 성생활을 거부한다거나(사례 1, 남자 69세 ; 사례 3, 남자, 69세), 손주들과 한방에 거주한다거나(사례 3, 남자 69세 ; 사례 6, 남자 72세), 다른 노인에 비해 건강이 다소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난 노인(사례 1, 남자 69세)으로 성과 관련된 상황적인 요소들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인가의 문제를 떠나 성생활을 할 수 있는 성생활 여건과 성에 대한 인식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여자노인들의 경우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노년기의 성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나 모두 성생활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노년기 성에 대한 인식과 성생활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생활은 위의 남자노인들과 마찬가지로 상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할아버지의 나이가 많아서(사례 11, 여자 79세), 생리적인 이유(사례 12, 여자 73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있고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66세에 80세의 재가노인 17명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세대가 갖는 성에 대한 인식과 현재의 성생활을 일대일면접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성생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성교육프로그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서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을 살펴보겠다.

첫째, 노년기 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부부간의 성과 사랑의 전환기를 살아온 현재의 노인들은 노년기 성에 대해 ‘당연하다, 삶의 활력이다’ 등 노년기의 성에 대한 편견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에는 여자노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많은 노인들이 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은 표집과정에서 성에 대해 자연스레 털어 놓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럼에도 노년기 성을 단순히 성적쾌감이 아닌 삶의 질과 연관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노년기의 성

이 노인의 삶의 질과 가정화목, 삶의 활력과 연관된다는 생각은, 노년기의 성을 단순히 신체적 접촉에 의한 쾌락의 매개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정서적 요인이 결합된 sexuality(남영주, 옥선화, 2000)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노년의 성을 바라볼 때 노년의 성에 대한 노인의 개인적 편견만이 아니라 사회적 편견이 줄어들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또한, 여자노인의 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본 연구의 대상자가 3명으로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노년의 성과 관련하여 젠더의 차이가 없다고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한 본 연구의 대상 노인들이 모두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 성에 대한 젠더의 차이는 좀 더 많은 여성노인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과 없는 여성노인을 모두 표집했을 때 좀 더 분명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노년기 성에 대한 이중적 가치관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적은 것과는 달리 노인들은 노년의 성에 대해 이중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성에 대한 이중적인 가치관은 성에 대한 인식과 표출의 차이,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의 차이에서 드러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중성의 원인을 젊은 시절에 노인들의 성에 대한 인식과 현재 자신들의 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찾고자 하였다. 즉, 노인들은 젊은 시절 노인들의 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앞서 분석에서와 같이 자신들의 현재의 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례 15의 말처럼 나이를 먹고 보니 더 먹은 사람을 봐도 가능하게 보이는 것과 같은 노년기 성에 대한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장년시기의 노년의 성에 대한 인식이 노인 된 후의 자신의 성에 대한 사고로 이어진다는 주장(서혜경, 이영진, 1997)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인들이 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노년기 부부간의 성생활이 활발하다는 단편적인 측면만을 보고 현재의 노인들이 노년의 성에 대한 편견이 없다고 단정 짓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즉, 성에 대해 이중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 노인 스스로의 편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년의 성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가치관은 성을 은밀한 장소에서 소극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떳떳치 못한 행위로 표출하게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노인들을 위한 성교육프로그램에서는 노년기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통해, 노년기 성생활이 건강한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인식시킴으로써 노년의 성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노년기에 성욕구가 생기는 것이나 성생활을 하는 것이 부끄럽고 감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건강한 행위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과 관련된 문제, 특히 노인의 성과 관련된 문제는 사회전반의 인식이 바뀌기 전에는 노인들의 성에 대한 인식과 표출간의 차이를 불식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노인을 포함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을 함으로서 사회적 인식전환을 통해 노인들에게 성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건전한 방향으로 성이 발산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성적인 존재로서의 노인

노인들의 부부간의 성생활이 과거에 비해 다소 감소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성관계를 갖고 있으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노인들도 성적인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노인들은 성적인 욕구가 생기는 매체로 비디오나 영화를 들고 있다. 노인들이 비디오나 영화에서 성욕구를 느낀다면, 노인들을 위한 성교육프로그램에서 비디오나 영화와 같은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성교육프로그램이 노인들에게 성적충동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나 성욕구가 있어야만이 성생활이 가능하고 노년기 성생활이 노년기의 삶의 활력과 관련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건대, 성교육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노년의 성생활에 장애가 되는 요인

건강과 배우자의 반응, 주거환경상의 문제가 나타났다. 건강과 배우자의 반응과 관련시켜 설명해 보면, 우선은 노년기가 되면 성기능이나 성적 욕구가 감퇴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을 성교육프로그램에 포함시킴으로서 노년기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자노인들이 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성생활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가부장적 문화권에서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시킴과 동시에, 여자노인과, 남자노인 따로 교육 할 것이 아니라 노부부가 함께 교육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가 증대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이 문제가 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노부부의 성생활을 위해서 손주들과 한방에서 거주하는 거주형태를 지양하고, 노부부만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의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에 더 나아가서는 노부부가 자녀와 별개의 집에서 거주한다거나 혹은 3세대를 위한 전용건물들이 좀 더 많아져야 할 것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노년기 성에 대한 인식과 노년기 성생활

노년의 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편견)이 현재의 성생활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노인들은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노인들은 모두 현재 성생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노년의 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3명의 남자노인들은 실상 배우자의 건강이 다소 안 좋은 점, 또 손 자녀와 한방에 거주하는 것과 같은 주거 환경적인 요인이 관계되는 것

으로 나타나,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환경적인 요소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추측하게 하였다.

반면, 여성노인들의 경우는 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나 현재는 성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나타났는데, 할아버지의 나이가 많거나 생리적인 이유, 성에 대해 이중적인 가치관이 강한 것이 그 이유가 되었다. 따라서 성에 대한 이중적인 가치관이 강한 여자 노인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의 경우는 성에 대한 인식과는 무관하게 상황적인 요소들 때문에 현재의 성생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성과 사랑에 관한 인식의 전환기를 살아온 노인들이 성에 관한 여러 가지 편견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노년기 성에 대한 편견이 노부부들의 성생활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의 표집 과정에서 상당히 제한적인 편의 표집을 하였고, 남자노인에 비해 여자노인의 수가 많으며, 노인들의 학력이나 생활수준이 낮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노인으로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도 제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성에 대한 인식과 성생활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접근은 상당한 거시적인 관점으로 소수를 대상으로 한 질적인 연구에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노년기 성에 대한 인식을 성생활과 연관시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성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 접수일 : 2003년 01월 10일

□ 심사일 : 2003년 01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10월 02일

【참 고 문 헌】

- 강현숙(2002). 노년기의 성에 관한 질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권명숙(2002). 노인의 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경자(2002). 여성노인의 성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동일(1997). 노인과 성, *가족과 문화*, 2, 53-67.
- 김윤정·정선아(2000).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간의 관계 규명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173-183.
- 김주희·이창은(2000). 유배우자 노인의 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년학지*, 20(3), 185-195.
- 김태현·한희선(1996). 노년기의 성,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89-106.
- 김태현·전길량(2002). 노년기 부부의 결혼 특성요인과 결혼 안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97-206.
- 남영주·육선화(2000). 가족학에서의 섹슈얼리티 연구를 위한 접근방법 모색, *가족과 문화*, 5, 1-29.
- 박형규(2000). *고령화사회에 있어 노인의 성생활 실태에 대한 연구* : 경기도 수원시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장합(1999). 노인의 성적 권리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혜경·이영진(1997). 노년기의 성에 대한 다각적 고찰, 노인의 성 정년은 언제인가, 동신대학교 부설 노인복지연구소.
- 송상호(1997). 노인의 건강과 성에 대한 의학적 고찰에 대한 토론, '97 제 2회 노인보건복지세미나 초록집.
- 신수진(2002). 이중적 가치관, 아산재단 미간행.
- 오세근(1997). 노인의 성적권리에 대한 복지철학적 이해, 노인의 성 정년은 언제인가, 동신대학교 부설 노인복지연구소, 38-39.
- 오진주(1999). 노인의 성 생활경험에 대한 서술적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2(2), 236-251.
- 이광규(1975). 한국 가족의 구조분석. 서울 : 일지사.
- 이미경(1998). 노년부부의 성생활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 개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숙(1998).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와 부부간의 사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윤숙(1983). 노인과 성, 한국의 노인복지, 대우 아산복지재단.
- 이행욱(2002). 노년기 부부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정서적 상호작용, 사랑과의 관계.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장영란·황수영·이혜정·신지영·강미라(1999). 성과 사랑, 그리고 욕망에 관한 철학적 성찰. 서울:서광사
- 정민자(1994). 평등한 부부관계를 위하여, *한국가족의 현재와 미래*, 도서출판 하우.
- 조성숙(1999). 노인과 성, 노인과 한국사회(267-302), 여성한국 사회연구편.
- 최봉영(2000). "한국 문화의 변동과 문화적 정체성", 「실크로드와 한국 문화」, 소나무.
- 최영아·이정덕(1996). 홀로된 노인의 성의식과 재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6), 207-221.
- 통계청 (2002). 인구동태.
- Atchley, R. C.(2000). *Social forces and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Belmont, CA Wadsworth.
- Bortz II, W. M., Wallace, D. H., & Wiley, D.(1999). Sexual function in 1,202 aging males: differentiating aspects, *Journal of Gerontology*, 54A(5), M237-241.
- Bretschneider, J. G., & McCoy, N. L. (1988). Sexual interest and behavior in healthy 80-to102-year-old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2), 109-129.
- Brown, L.(1989). Is there sexual freedom for our aging population in long-term care institutions? *Journal of Gerontology*, 24, 299-302.
- Butler, R. & Lewis, M. (1976). *Sex after sixty*. New York: Harper & Row.
- Byers, J. P. (1983). Sexuality and the elderly. *Geriatrics Nursing Sep/Oct*. 293--297.
- Cox, F. D. (1999). *Human intimacy : marriage, the family, and its meaning*,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Glass, J. C., Mustian, M. D., & Carter, L. R.(1986) Knowledge and attitudes of health care providers toward sexuality in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12, 465-475.

- Hillman, J.L., & Stricker, G.(1994). A linkage of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elderly sexuality: Not necessarily a uniform relationship. *The Gerontologist*, 2, 256-260.
- Kempman, G. I. J. , & Suurmeijer, T. P. B. M.(1990). The development of a hierarchical polychotomous ADL-IADL Scale for noninstitutionalized elders, *The Gerontologist*, 30(4), 497-502.
- Levenson, R. W., Carstensen, L. L., & Gottman, J. M.(1995). Emotional behavior in long-term marriage. *Psychology and Aging*, 10(1), 140-149.
- Mattias, R. E., Lubben, J. E., Atchison, K. A., & Schweitzer, S. O. (1997). Sexual activity and satisfaction among very old adults: Results from a community-dwelling medical population survey. *The Gerontologist*, 37(1) 6-14.
- Palmore, E. B. (1988). The facts on aging quiz, *A handbook of uses and results*, Springer publishing company, New York.
- Preifer, B. E., Verwert, A., & Davis, G. C. (1972). Sexual behavior in middle ag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 128.
- Starr, B. D. & Weiner, M. B. (1981). *The Starr-Weiner report on sex and sexuality in the mature years*. New York : Stein Day.
- Weinberg, J. S. (1982). Human sexuality and spinal cord Injury.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n*, 17(3), 407-419.